Calm Sea and Prosperous Voyage, Op. 27

- □□

정보

Felix Mendelssohn: *Meeresstille und glückliche Fahrt*, Op. 27

개요

- **IMSLP:** https://imslp.org/wiki/Meeresstille_und_gl%C3%BCckliche_Fahrt%2C_Op.27_%28Mendelssohn%2C_Felix%29
- **Wikipedia:** https://en.wikipedia.org/wiki/Calm_Sea_and_Prosperous_Voyage_(Mendelssohn)

Felix Mendelssohn의 *Meeresstille und glückliche Fahrt* (*Calm Sea and Prosperous Voyage*), Op. 27은 Johann Wolfgang von Goethe의 두 시를 바탕으로 쓴 독립 관현악 서곡이다. IMSLP에 올라온 총보는 517마디로 되어 있다. Mendelssohn은 1828년에 작곡을 시작했고, 1832년 12월 1일 베를린 Singakademie에서 열린 공개 초연을 직접 지휘했다.

출판 정보와 판본

Christopher Hogwood가 편집한 Bärenreiter Urtext에는 1828년판과 1834년판이 함께 실렸다. 출판사에 따르면 1828년판은 Mendelssohn의 유고에 남아 있는 필사본을 바탕으로 하며, 1834년판보다 50마디가 길다. Bärenreiter는 1834년판을 오늘날 더 잘 알려진 판본으로 소개한다. Boston Symphony Orchestra(BSO)는 작곡가가 1832년까지 곡을 고쳤다고 전하고, Bärenreiter는 출판된 두 판본을 1828년과 1834년으로 구분한다.

IMSLP의 일반 작품 항목은 첫 출판 연도를 1835년으로 적지만, 개별 총보 항목에는 1834년 판과 판각번호 5544가 기재되어 있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12분이다.

편성

Bärenreiter 작품 정보에 실린 편성은 다음과 같다.

목관: piccolo, 2 flutes, 2 oboes, 2 clarinets, 2 bassoons, contrabassoon, serpent
금관: 2 horns, 3 trumpets
타악기: timpani
현악기: strings

괴테의 두 시와 단일 서곡

Goethe의 Meeresstille은 바람이 끊겨 배가 나아가지 못하는 바다를 그린다. 돛배 시대에는 무풍이 평화로운 휴식이 아니라 항해를 멈추게 하는 위험이었다 . 뒤따르는 Glückliche Fahrt에서는 바람이 돌아오고 배가 육지를 향해 움직인다. 두 시는 Reichardt와 Schubert의 노래, Beethoven의 합창 작품에도 쓰였다. Mendelssohn은 가사 없이 관현악으로 두 시를 한데 묶었다.

BSO의 프로그램 노트는 이 서곡의 진행을 느린 부분과 빠른 부분, 안전한 도착을 암시하는 코다로 설명한다. 이는 악장 구분이 아니라 한 곡 안에서 두 시가 이어지는 과정을 풀어 주는 해설이다. 같은 노트는 종결부를
화려한 팡파르 대신 앞서 나온 항해 주제를 작게 되새기는 대목으로 풀이한다.

초연과 초기 공연

BSO의 작품 연혁에 따르면 Mendelssohn은 1828년 6월 작곡을 시작했고, 그해 9월 7일 가족 저택에서
비공개 시연을 열었다. 이 공연은 1832년 12월 베를린 Singakademie에서 열린 공개 초연과 구분된다. 이후 곡은 Mendelssohn의 음악회 프로그램에 자주 올랐고, 1835년 10월에는 그가 Leipzig Gewandhaus Orchestra 음악감독으로 처음 지휘한 음악회의 첫 곡으로 연주됐다.

도입부 설명과 연주 비평

Indianapolis Symphony Orchestra의 Marianne Williams Tobias는 2015년 프로그램 노트에서 Mendelssohn이 설명한 도입부 구상을 인용한다. 그 설명에 따르면 현악기는 여러 마디에 걸쳐 한 음을 지속하고, 이어 관악기와 팀파니가 움직이기 시작한다.

John Eliot Gardiner가 London Symphony Orchestra를 지휘한 2014년 연주에 관해 Curtis Rogers와 Simon Thompson이 각각 평론을 남겼다. Rogers는 10월 2일 Barbican Hall 공연에서 현악기가
무비브라토로 시작한 뒤 빠른 부분에서 비브라토를 되살리는 변화를 짚었다. 그는 도입부의 음색이 바다의

광활함보다 출항을 앞둔 기대감을 주었고, 빠른 부분의 가벼운 터치에는 Gardiner의 시대연주 접근이 드러났다고 평했다.

Thompson은 2014년 실황을 담은 LSO Live LSO0775를 2015년에 평하면서 깊은 저음의 울림과 플루트의 진입을 언급하고, 팀파니가 종결부의 도착감을 고조시키는 방식에 주목했다. 그는 무비브라토 현악이 정적에 긴장을 더하는 한편, 마지막의 환희를 조금 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다.

주요 자료

Bärenreiter, BA09057 Urtext 판: Christopher Hogwood 편집, 1828년 ·1834년 판본과 50마디
차이.
Boston Symphony Orchestra, 작품 해설: 작곡 ·초연 ·초기 공연 연혁과 서곡의 프로그램 해설.

Indianapolis Symphony Orchestra, Marianne Williams Tobias의 프로그램 노트: Mendelssohn
이 전한 도입부 구상과 관악 ·팀파니의 역할.
MusicWeb International, Simon Thompson의 LSO Live 평론: Gardiner·LSO 실황 음반의 연주 선택과 종결부에 대한 평가.
The Classical Source, Curtis Rogers의 Gardiner·LSO 공연 평론: 2014년 Barbican Hall 공연의 현악 음색과 빠른 부분에 관한 관찰.